

2025 새해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공감 복지 노력

임택 동구청장

골목상권 회복 지역화폐 발행
체류형 예술여행도시 구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인 을 한해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연말을 돌이켜보면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항공기 참사까지 온 국민이 '안타깝고 참담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월정신으로 하나 된 시민들은 실추된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계엄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악화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과 수소도시 등 미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신(新)산업을 기반으로, 일상이 관광인 도심 속 '체류형 예술여행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해 광주 동구를 '예술여행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도시 환

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건강도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보건·복지·의료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참여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인구변화,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먼저 챙기는 '세심하고 촘촘한 동구형 공감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도 '동구의 희망은 주민 속에 있다'는 각오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유연재 기자 yjyou@

골목상권·전통시장 활력...건강도시 실현

김이강 서구청장

특색 담은 권역별 공동사업
마을정책참여단 등 활성화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빛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지역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희망과 지혜로운 성취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은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 중심의 따뜻한 생활정부로 다가가겠습니다. 각 동의 특색을 담은 마을 BI 사업을 통해 권역별 공동사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주민 주도 마을정책참여단과 마을합창단을 활성화해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골목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도시로 거듭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명장의 노후우 전수 프로그램 운영, 현장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면서 잠재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서구 아너스'를 중심으로 '012 서구 파트너스'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경로당 조성 등을 진행하며 '천원국시'는 10호 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스마트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를 확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거점형 특화 맨발로 조성,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열어하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서빛마루 문화회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풍요로운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해 행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화려한 구호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려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희망의 등불이 돼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함께 나누고 화려한 구호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려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희망의 등불이 돼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유연재 기자 yjyou@

백운광장 상점가 온라인 쇼핑몰 진출

남구,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무등시장 택배 접수

광주시 남구가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무등시장 생활권의 택배 물품 접수 대행,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을 통해 잠재되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사진>

남구는 8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 2곳이 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남구는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시장경쟁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상인회에서는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 마케팅과 매니저 채용, 상인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시장경쟁의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에 각각 4500만원을 투입해 상인회를 지원한다.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지역에서는 점포 10곳의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포털사이트 마케팅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며, 홍보용 쇼츠 영상도 제작한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지난해 장산초 학생들이 장보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오는 3월부터 열리는 토요일 야시장의 흥분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입주 상가와 백양로 주변

상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주인력 행명을 채용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북구, '돌봄·교통·의료' 생활권리 보장

'주민 기본 삶 보장 5대 시책' 역점 지원과제로 선정

광주시 북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시책을 내놨다.

북구는 "올 한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전환을 목표로 돌봄·교통·의료 등 '3개 권리보장 분야'에 주민 체감형 '5대 시책'을 역점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돌봄 분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교통 분야 '아이맘 교통비 지원'·'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제작', 의료 분야 '돌봄 영역 종사자 무료 독감 접종 지원' 등이 대표 정책이다.

5대 시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북구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월부터 '광주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북구에 주소를 둔 남성 노동자 가운데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자로 신청하게 되면 자녀당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

해 돌봄 인력이 아픈 아이를 픽업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책임져주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북구 지역 맞춤형·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한다.

아울러 입산부의 기본적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북구에 거주하는 영아(0~24개월) 동반 가정 2000가구가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구는 이달부터 무장애 도시 조성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입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앱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숙박·휴게·관광시설, 음식점 등의 '생활정보 검색'과 '장애인 택시 이용 원스톱 신청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시점은 정보 수집과 개발 기간을 거쳐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다진 기자 kdi@kwangju.co.kr

광산구, 지난해 공모사업 154건 사업비 421억 확보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한 공모사업과 대외 평가에서 총 154건이 선정돼 421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다.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공모사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사업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이 선정돼 민선 8기 들어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국비 98억 원(총사업비 19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는 40년 숙원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사업 등 4건이 선정돼 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40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23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12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2억 5000만 원) 등 올 한 해만 78건의 공모 선정으로 412억 원에 달하는 구정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지원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만 4개 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혁신 성과로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부문 수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복지 분야에서 4관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3년 연속 수상, 제19회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재정집행 우수 3관왕, 소셜어워드 3년 연속 대상 등 올해 광산구 수상 실적은 총 76건(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featuring NH Bank, zgm pay card,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and a list of services like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and '햇살론'.